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순창군-서울안과의원 협약... 60세 이상 저소득층 군민 대상 혜택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의치 시술비도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획기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우선 순창읍에 위치한 서울안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백내장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다는 여론이 많아 군이 자체예산 1,200여만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0세이상 군민 중 순창군에 주소록 두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자 중 서울안과의원을 내원해 백

내장 진단을 받을 경우 수술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군은 지난해에도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 430명에 대해 안과검진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줬다. 이와함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군은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 개정 핵심내용은 종전 지역 지원제에서 정률제로 상향 조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아래 틀니를 시술한 경우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1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비의 상승으로 인한 노인분들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또 평생 1번만 지원 받던 것을 지원 후 7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1~3등급자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여야 한다. 보건의원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올림픽 3관왕 진중오 선수를 비롯해 KT사격선수단이 지난 3일부터 방문해 전지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심민 임실군수(왼쪽 네번째)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종합사격장, 관광 명소 자리매김

방문객 전년 대비 40% 증가... 올림픽선수단 전지훈련·일반인 체험 등 인기

임실군 청용면 소재 전북종합사격장 상반기 방문객이 전년대비 40% 증가하는 등 선수단의 전지훈련과 일반인 사격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올림픽 3관왕 진중오 선수를 비롯해 KT사격선수단(감독 차영철)이 방문해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진중오 선수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주종목인 50m권총이 폐지돼 신설 종목인 10m 혼성권총으로 새로

운 도전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심민 전라북도사격연맹 회장은 부회장단과 함께 선수단 일행을 만나 격려했다. 심민 회장(임실군수)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사격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달라"며 "전북도사격연맹도 선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회 규격과 최신설비를 갖춘 전북종합사격장은 천혜의 자연속에

위치해 정신집중이 중요한 사격 선수의 훈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군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견전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일반인 체험객의 발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선수단 전지훈련, 사격체험 등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홈페이지(<http://www.jshoot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13일 군민회관에서 지역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 100세 시대 치매걱정 해결”

임실군, 부정적 인식 개선·파트너 양성교육 성료

임실군은 13일 군민회관에서 지역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등 환자 급증으로 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 생활화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원 강인숙 방문집담이 강사로 나서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환자 마음 이해하기 ▲가족의 심정 및 소통 ▲환자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치매파트너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실제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의 영상과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해 뇌신

경체조 체험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교육 후에는 보건의료원 방문간호사 7명이 약 1시간 동안 치매 1:1 상담 및 만성질환 상담,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검사를 실시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는 적절한 치료, 우호적인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치매조기검진 등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와 치매예방 교실, 요양원 인지 증진 프로그램, 가족지지 헤어업 교실,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관리사업, 가족지지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농한기 고장농기계 현장 수리 임실군, 사고예방 교육도 병행

임실군이 농한기를 맞아 고장난 소형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농가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예초기와 관리기, 경운기 등과 같은 소형 농기계의 간단한 고장은 농가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농가들로 하여금 간단한 고장을 농가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수리기술을 알려줌으로써 고장 발생 시 농가 스스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장난 농기계도 현장에서 직접 수리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장난 농기계는 지정된 장소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진행된다. 고장난 농기계 수리비용은 1만원 미만까지는 무상이며, 1만원이 넘을 경우 부품비용만 농가가 납부하면 된다. 특히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은 안전이용 수칙 미준수와 소홀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팀은 2명이 한 조가 돼 진행하게 된다.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총 24회에 걸쳐 권역별 임대사업소, 농업인상담소 및 면사무소에서 읍면별로 2회씩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가족정책 우수기관 선정

여가부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영예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3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우리사회에 건강한 가족가치관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 격려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것이다. 이번 포상은 전국 2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남원시가 포함되었다. 남원시는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 기쁨이 취약한 가족에게 역량강화를 도모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남원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최고경영층

의 리더십, 직원만족도 조사, 가족친화 실행제도를 심사하여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6년도에 기 선정 되었다. 또 시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역량교육, 아버지역할지원, 노년기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망 상지원 사업 등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으로 2016년 58회기 1,676명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남원시장은 "이번 포상 결과는 그동안 남원시가 가족정책업무와 다문화 업무 등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가정정책에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새로운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주민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직원 홍보역량 제고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3일 오전 10시, 남원시청 강당에서 홍보담당직원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되는 뉴스 VS 안되는 뉴스'란 주제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를 주재한 이우석(스포츠타alent 디지털리프 부장)은 언론에 대한 이해와 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문장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대응 등을 교육하며 능동적 홍보역량 강화 및 언론인과의 소통의 쪽 향상에 대한 이해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언론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자료 작성요령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교육으로 전 직원 언론 홍보 역량강화를 통하여 타이밍이 맞는 보도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 남원시 홍보전산과(과장 마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도자료 작성과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시 전방을 소개할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장 신부(Didier l'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